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사진부 및 담당
서울상인유니온(준) 사무국장 김동규 (010-3940-2012)
발 신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동주 (010-2203-8293)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제 목 “내가 이리려고 세금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날 짜 11. 9 (화)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리탑앞

보 도 자 료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일시 : 2016년 11월 9일 (수) 오전 11시

장소 : 청계광장 소리탑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규 서울상인유니온(준) 사무국장

시국선언 참여 중소기업 가게 및 본인 소개 (30여명 참석예정)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부평 문화의 거리 옷가게)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망원시장 옷가게)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은평구 동네마트 운영)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천안 문구점 운영)

김대형 남양유업대리점 운영 (용산구)

김진철 상인비례 서울시의원 (마포구 손두부 가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연대사

시국선언문 낭독 및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증소상인 시국선언 (일명 :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시국선언)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켜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100만원이다. 이름은 편의점 사장인데, 알바생 월급 챙겨주기도 힘들다. 내가 무슨 사장이나.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쇼를 하더니, 우리동네에 떡 하니 재벌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단다. 또 역장이 무너진다.

청년상인들이 지역상권 살렸더니, 조물주위 건물주가 또 임대료를 올려달란다. 정부도 지자체도 강건너 불구경이다.

대리점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갑질은 아직도 끝이 없다. 물량 밀어내기, 홍보비 떠넘기기, 불공정계약에 일방해지까지. 공정경제도 동반성장도 말뿐이다. 일할수록 빚만 늘어난다. 누굴 믿고 장사하나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동네마트 카드수수료가 더 높다. 그 카드수수료로 직원월급 올려주고 단골손님 서비스 하나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유통재벌 2세 3세들이 빵집이다. 카페다. 식당이다. 미용실이다.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이제 상도덕도 없다. 이래서야 백년가게가 생기겠나 동네 단골가게가 살아남겠나

나라도 망쳤다. 경제도 망쳤다.
박근혜정부와 재벌과 최순실일당은 공범이다.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내가 이러려고 장사를 하나 자괴감이 들어 괴롭다

민주주의도 망쳤다. 국민 자존심도 짓밟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재벌독식경제 중단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최순실일당 심판하자!

2016년 11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분노한 동네사장님들 일동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분노한 동네사장님 시국선언



2016. 11. 09. 11시 청계광장 앞